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앉아 있다.

‘조국 대전’ 드디어 열린다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내달 2~3일 실시 합의 법사위, 계획처 의결 위해 오늘 전체회의 개최

‘조국 대전’이 열린다.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회동 직후 전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간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3당 간사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생각했고 국민도 직접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실시하는 것을 양보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 데 아니다. 적법하다는 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8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일간 실시를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거의 수십 가지 의혹들을 이틀 동안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려 한다”며 “의혹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검증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포함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해 절차에 대해 “내일(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별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라든지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 일질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도 드린다”며 “여는 청문회처럼 증인·참고인을 이라저러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필요한 증인은 당연히 채택해서 청문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미리 단정해서 야당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이며,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오늘 고위당정청 연다 지소미아·정기국회·민생 등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회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연다. 이번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당정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이후 후속조치,

일본의 배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대책을 점검하고 9월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심상창은 변화...“특권 엘리트층의 삶 살아온 조국”

“사법개혁 책임자인지 의구심” 송곳 검증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명을 앞둔 정의당이 26일 조 후보자를 향해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왔다”며 날선 발언을 날렸다. 정의당은 또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성역 없이 불을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심상창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책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

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훌륭한 사법 개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명과 성찰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특권을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 자유한국당은 그 논의에 걸 자격조

차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중성에 끌려가지 말고 정당을 가기 바란다. 야당 없는 국민 청문회는 객관성도, 실용성도 떨어진다고”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정 합의의 가능성을 밝힌 만큼 오늘 내내 반드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문 대통령 “소세·부품·장비투자 펀드 가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세·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NH-Amundi 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 상품)에 가입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에서 지난 14일 출시했으며,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낮춰 그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운용사측에서도 운용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지원한다.

홍준표 “이 절호의 기회 놓치면 한국당은 희망없는 정당”

“무슨 약점이 있어서 주저하는가...여기가 승부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친다면 한국당은 영원히 희망 없는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절반으로 꺾였고, 조국 사태로

급전직하고 있다”며 “야당이 만회하고 일어설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전이나 모양을 찾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여라”라며 “무슨 약점이 있어 그렇게 주저하는가. 여기가 바로 승부처”라고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에 목매서 눈치나 보는 정치 하

지마라”며 “이미 강남도 넘어갔고 대구도 지난번 그 호시절에도 공천받고 떨어지지 않더라”고 했다. 또 “자위행위에 불과한 장외투쟁도 좋지만, 문제의 본질은 원내 투쟁에 있다”며 “내가 당 대표일 때는 정권 초기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달해 언론도 눈치를 볼 때라 야당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